# 전북도, 25개 중앙공모사업 선정

## 국비 984억원 확보…탄소산업 · 농생명산업 다수 포함 지역전략 사업 육성 탄력 기대

전북도가 2016년도 1분기 중앙공모사업 선정에서 최근 4년간 최대확보의 성과를 이룬 가운데 올해 4월 중 중앙공모사업 선정도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도는 4월중 25개의 사업이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98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달 4월 중 중앙공모사업 선정에 대해 15건, 106억원 규모를 예상했다.

그러나 도가 초기 준비단계부터 응모단계까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단계별 대응방법, 방침결정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에 힘쓴 결과 국비 공모사업에서 목표치를 웃도는 좋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 중에는 도의 역점사업인 탄소산업, 농생명산업의 공모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지역전략 사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중 선정된 주요 중앙공모사업 중 탄소산업 분야로는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산업부, 국비 100억원)과 '탄소 전기 와이어 응용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등이 있다.

도는 이들 사업들의 공모선정은 지방재원 절감 효과는 물론, 탄소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농생명산업 부분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 센터 조성 사업(산업부, 국비 70억원)과 '발산업 육성지원사업(농림부, 국비 11.7억원)', '75kw급 이상 트랙터용 LSD방식의 전방 차축 및 지능형 현가시스템 개발사업(산업부, 국비 30억원)', '블녁경영체 육성(농림부, 국비 15.1억원) 등이 있다. 이 중 특히 '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 센터 조성 사업'은 도가 전북TP, 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 동양물산 등과 협업을 통해 국가 ODA*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한 사례이다. 도는 이로 인해 도내 농기계 업체의 수출 증대 및 농작업기 관련 중소 농기계 업체의 동반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 중앙공모사업도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

도는 4월 중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환경부)'에 공모·선정됨에 따라 국비 51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하수도, 생태하천복원 등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단기간에 집중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하천(전주 아중천, 남원 주촌천)의 미관 문제는 물론 고질적인 악취문제 등이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에게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안전처, 국비 36억원), '쌀수탈 근대역사교육벨트 조성사업(농림부, 국비 24억), 보건의료 T2B 기반구축사업(복지부, 국비 70억원), 로봇융합 비즈니스지원사업(산업부, 국비 6억원) 선정 등이 4월 중 도의 중앙공모사업 선정 실적으로 분류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는 5월에는 10건, 293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 내일 송천동 어린이회관에서 '어린이날 대축제'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제94회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가 전주시 송천동 어린이회관 일원에서 열린다.

전라북도어린이회관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식전행사와 기념식, 상설행사인 체험마당, 놀이마당, 공연마당, 전시마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식전행사에는 기마경찰대, 히어로캐릭터 퍼레이드와 비보이공연 및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의 축하공연이 준비돼 있다.

이어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도교육감, 김영배 도의회의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94회 어린이날 기념식이 있을 예정이다.

기념식이 끝나면 체험, 놀이, 공연, 전시 등 4개 마당으로 나뉘어 각 마당의 주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잔디광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체험마당은 신기한 과학놀이, 민속놀이, 소방안전체험, 교통안전체험 등이 준비되어 있고, 놀이마당에서는 동물농장 에어바운스 등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도 있어 더욱 신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공연마당에는 가족이 참여하는 시끌벅적 명랑운동회와 장기자랑 등이, 전시마당에서는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아동폭력예방 캠페인이 진행되고, 공연장에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유아 인형극과 더불어 재밌는 어린이 인형극과 애니메이션이 상영될 예정이다.

/정영수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영국 옥시 본사 방문 키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영국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덴마크를 찾아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원료물질 공급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3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오는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옥시 본사 총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4일 출국할 예정이다.

또 '세퓨' 원료물질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공급한 덴마크 케톡스사도 방문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영국과 덴마크 검찰에 각각 레킷벤키저와 테스코, 케톡스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보도자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의 67%는 유럽기업에 희생됐다"며 "레킷벤키저 영국본사가 사과와 책임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세계적인 레킷벤키저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안진수기자

## 정부 로또 카드구매 허용 인터넷 판매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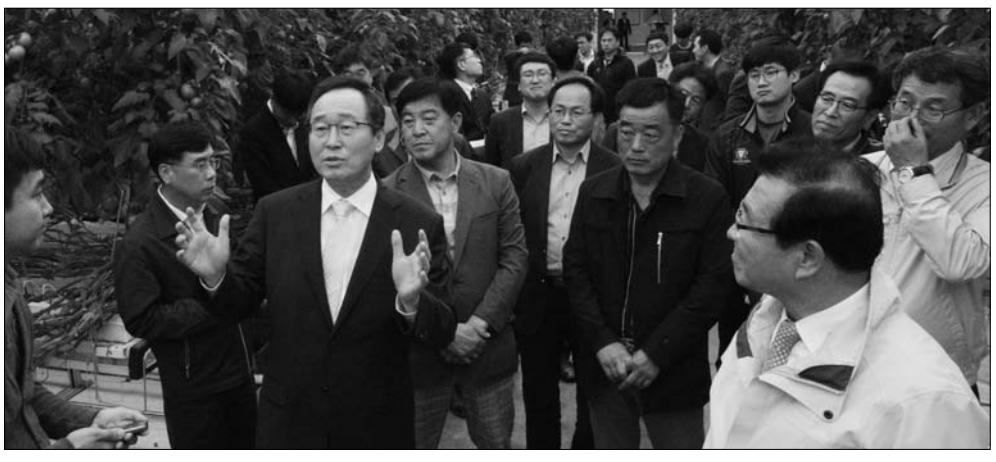
정부가 온라인복권(로또) 구매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로또 인터넷 판매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대통령령 위임사항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에 전자적 형태의 온라인복권(로또)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권 및 복권법이 개정되면서 로또의 인터넷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현재 로또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며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로또에 대해 결제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로또 인터넷 판매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고 시스템구축에도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인터넷으로 로또가 판매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상자 등에 혜택을 주고 있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 또 연간복권발행계획을 변경 사유는 복권 수요변동, 정책 변경 등으로 규정했다.

/안진수기자



스마트팜 현장행정

3일 김제시 하랑농원에서 열린 스마트팜 현장행정에 송하진도지사와 이건식 김제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마토를 재배하는 첨단온실에서 스마트팜 제어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정부, 북한 여종업원 집단귀순 "자유의사 따른것"

정부는 3일 북한이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보낸 것과 관련, "자유의사에 따른 귀순"이라고 일축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주제네바 북한대표부가 유엔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귀환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이들(종업원) 부모 명의의 서한을 인권이사회 의장과 인권최고대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 서한은 이들 종업원의 한국 입국이 납치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집단탈북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들 식당 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송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징벌을 가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북한 당국의 테러·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재외공관 등에 재외국민의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또한 언론단체 등에 북·중 접경지역 취재 시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을 수차례 당부하고 있다.

/박용주 기자

## 남원 만인의총 정부가 직접 관리

### 문화재청 소속으로 의결…교육공간 조성에 힘쓸 예정

앞으로 남원 만인의총은 정부가 직접 관리키로 하면서 국가 사적인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원 만인의총(사적 제272호)을 국가기관인 문화재청 소속으로 해 국가가 직접 관리키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나선화 문화재청장의 만인의총 방문을 계기로 국가관리 전환에 박차를 가해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승인된데 이어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다.

특히 문화재청은 내년부터 '만인의총 유적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 국가 사적 가치 재정립과 더불어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등 교육공간으로도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정부 관리에 따라 만인의총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인 정비종합계획 시행으로 만인의총 참배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상권의 판매 수익증가가 예상된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만인의총이 국가 관리로 승격됨에 따라 유사문화재인 칠백의총 이상의 위상 제고가 기대되며, 아울러 다양한 콘텐츠 소개로 후손에게 살아 있는 애국교육의 장 제공으로 대국민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가 1979년부터 관리해 온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시 왜군 5만6,000명을 맞서 남원성을 지키다 순절한 1만여명의 의사를 모신 민족의 성지다.

/고민형기자

주간(주말), 야간 면접 특강

스피치 · 시낭송 · 면접 · 웃음치료 · 매직(마술)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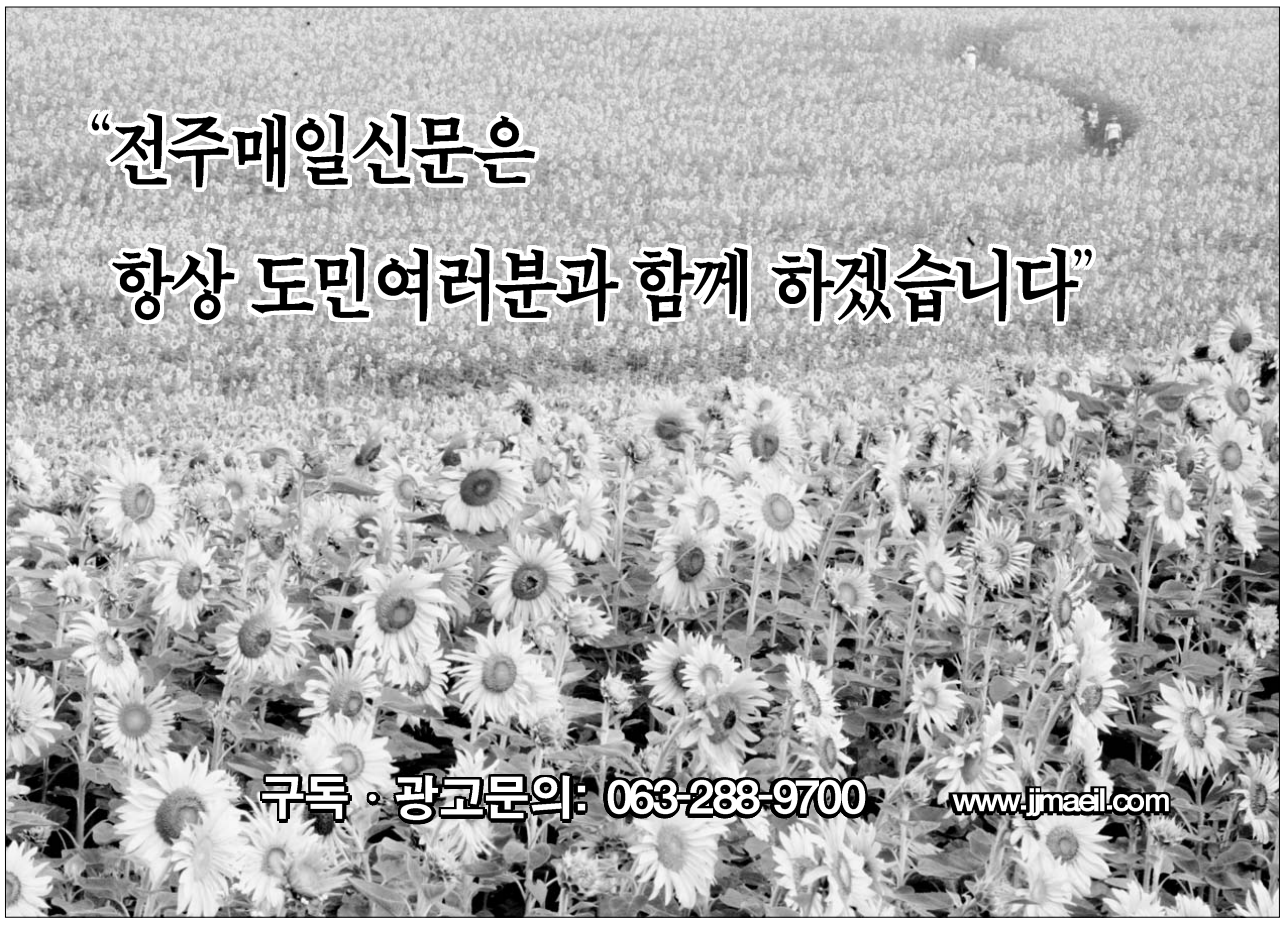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김양옥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쉽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